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내의 눈썹에 쌓인 먼지



(이 글은 결혼 한지 1년 만에 의식불명이 되어 수년 후 다시 일어났으나, 또 다시 5년 전에 쓰러져 의식 없이 살아가는 아내를 그리는 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56세)의 글입니다)

결혼생활 23년 중에 저는 줄곧 병마와 싸우는 아내와 살아와야 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쓰러진 것은 1981년 초

결혼 1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했던 아내는 의류 직물학 분야의 전통 있는 일본 오차노미즈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쓰러지기 전까지 아내는 한성대학교수로 출강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시샘해서인지 1999년 8월에 아내는 두 번째로 쓰러진 것입니다. 보호자도 허락된 시간에만 들어가야 하는 중환자실에서 꼼짝도 않은 채 사랑하는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지방출장으로 인해 며칠 간 돌보지 못하였고 간병하던 친척아줌마도 경황없이 돌보는 사이 아내의 눈썹에 쌓인 먼지를 보고는 저의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정말 당신 이렇게 살다가 가야만 하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호수를 통해 넣어줘야 하고 배설을 하는 것은 물론 손끝하나 발끝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가 내 나이 70이 되는 10여년 후에도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기 당신에게 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바람이 당신의 영혼에 전해져 벌떡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나를 힘껏 안아 주시오.

사랑하는 당신에게,

여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묻혀 살아야 당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또 일에 묻혀야만 나를 지킬 수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일에 묻혀 파김치가 되어 한밤에 들어와야 하는 심정, 당신은 아십니까?

온몸이 피곤에 지쳐야 잠을 잘 수 있는 심정을 당신은 아십니까?

빨리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해 주는 밥을 먹고 싶고 당신이 다려준 와이셔츠를 입고 싶습니다.

당신이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살아생전 한번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여보!

신혼 초 당신이 이불속에서 손을 잡고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던 당신이 이제는 내 옆에 있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누구와 말벗이 되어야 합니까?

부디 당신! 나의 애타는 23년의 기다림을 불쌍히 여기거든 벌떡 일어나 나를 껴안아 주시오. 당신이 일어나는 날 나는 하늘을 날겠습니다.

- 당신을 기다리는 남편으로부터-

◀문제의 A학생 ▶ 국어시험

국어시험: 다음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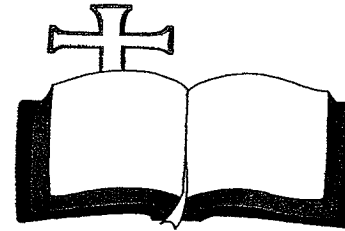
문제: [어떤 일을 3일도 안되어 바뀌버리는 마음을 작()삼()이라함]

올론 정답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친근한 친구 A 학생, 자신있게 썼습니다. 답: 「작(은) 삼(촌)」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0월 2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신앙생활의 미신적 특징 10가지

(야고보서 2장 21-22절)



1. 말만 앞세웁니다.
자기가 제일 신령한 사람이라는 어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2. 한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풀이의 통로로 사용하려는 자세도 없어야 합니다.
3. 싸우려고 듭니다.

신앙을 전투로만 생각하고 이해와 용서를 모른다면 문제입니다.

4. 두려움과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저주'라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는 분은 위험합니다.
5. 어거지가 많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결코 '몰상식'은 아닙니다.
6. 가정을 경시합니다.
사명을 이유로 가정을 팽개 치는 모습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7. 외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인격적인 행복이 없는 축복은 허무한 것입니다.
8. 신기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을 '신기한 것'으로 아는 것은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9. 엉뚱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인정하기보다는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10. 질서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빈약합니다.
이기주의와 무책임은 신앙의 큰 적입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품따라 행하기▶

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7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46 (요 14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02장	
기 도 Pray		최재학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6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43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조재근, 방명아 집사 가정)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2	최재학	박영대	조재근, 방명아	<현관> 김종건 이광희
9	현석호	박재양	송의수, 이성희	
16	김교섭	박정자	김홍구, 윤경례	
23	김순자	박태원	김용석, 최신덕	<본당> 노은숙 정희자
30	김영길	박하림	김상덕, 박제란	

◆10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이웃교회참석수요예배(5) 구역예배(7일)
9	믿음의어머니기도회(11)
16	
23	
30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2시

1. 교우소식

<등록> 손기현, 김영원 집사(3선교, 7구역) 재흥, 재명

☎ 623-0025. 36B Kings View Rd. Mt Eden

<아기의 백일을 축하합니다> 최지안(최종일, 김수정 성도 딸)

*백일 떡은 백명에게 돌려야 복 받는다 것은 그만큼 베풀며 살라는 우리 조상들의 넓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께 떡 대접하는 아기와 가정에 축하의 말로 주님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크신 주님의 복이 아기의 앞날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결혼식> 박재홍 쿤(박 실, 변민강 집사 장남), 진하정 嬢(진용성, 유소순 씨 장녀)

<일시> 8일(토) 오전 11시. <장소> 본당

2. 금주는 정기구역예배 주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7:30>

3. 정기확대당회: 예배 후 모임(유아실)

4. 이번주 수요예배는 『이웃교회 참석주간』입니다.

*구역예배가 있는 첫주간의 수요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이웃교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방법으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개인기도”를 원하는 교우를 위해 예배당의 문은 열어 놓습니다. 이럴 때 조용한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5. 정기노회: 우리교회가 속한 “남태평양노회”가 3일(월) 10시에 모입니다.

6. 아동부 방학야외놀이 <장소> Rainbow's End(Manukau). <회비> \$13

<일시> 7일(금) 오전 10시 교회로 모임

*부모님들의 차량자원봉사와 Helper 자원봉사를 바랍니다(문의: 이규임 권사)

7. 성경공부반 개설 <과목> 초신자를 위한 “기초신앙반”

<담당> 이태한 목사 <일정> 8회 <신청> 신청용지 사용(헌금함)

◀착한 시인들▶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용혜원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일들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

살아가는 날이 그렇고 그러기에
새로움을 느낄 수 없다면 한번
몸을 구부려 다리사이로 하늘을
보세요. 어린 시절 많이 해 보던
그때처럼.

그러면 하늘은 늘 보던 하늘이
아니고 나무는 조금 전 서 있던
나무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동안 구부려 세상을
보듯이 내 마음을 바꾸면 참 많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행복해 하려는 만큼만 행복해
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행복의 법칙입니다.